

광주·전남 인구 ‘유출 지속’…지난해만 1만6천명 떠났다

호남통계청, 인구 이동현황…광주 6000명·전남 1만명 전출
전남 10~20대 청년인구 순유출, 광주 대비 3.2배 더 높아

광주와 전남지역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10~20대 청년인구 순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광주·전남지역 인구는 2015년(전남 +3만9000명)을

제외하면 매년 유입보다 전출 인구가 많았다.

2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광주·전남지역 국내 인구 이동현황’에 따르면 전입자 대비 순유출 인구는 광주 6000명, 전남 1만명 등 총 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광주는 22만6000명이 유입하고 23만2000명이 유출됐다.

전남은 23만9000명이 전입한 가운데 24만9000명이 외지로 떠났다. 이중 10대(1304명)와 20대(1만994명) 청년인구 유출은 총 1만2298명으로 광주(3378명)보다 3.2배 많았다.

광주지역 인구 전·출입 1순위 지역은 전남으로 각각 53.1%, 45.0%를 차지했다. 광주의 전입은 전남(53.1%), 경기(10.8%), 서울(1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출은 전남

(45.0%), 서울(15.2%), 경기(14.4%) 순으로 높았다. 전남지역 전·출입 1순위 지역은 광주로 각각 37.7%, 36.8%를 차지했다. 전남으로의 전입은 광주(37.7%), 경기(15.7%), 서울(12.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출도 광주(36.8%), 경기(16.6%), 서울(14.4%) 순으로 높았다.

주된 전입사유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높게 차지했으며, 광주37.9%, 전남은 30.3%를 보였다.

광주지역 인구이동 사유는 ‘주택(37.9%) >

가족(25.3%) > 직업(18.1%)’ 순으로 파악됐으며, 전남도 ‘주택(30.3%) > 가족(27.2%) > 직업(24.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시·군·구별 전입률 1위는 광주 동구(22.02%)로 나타났으며, 전출률은 전남 목포시(18.03%)가 가장 높았다.

순유입률은 무안군(6.42%)이 +5337명’으로 가장 높았고, 순유출률은 광양시(-3.40%)가 -523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동취재본부

文 대통령 “AZ백신 안전 재확인 우리 부부·수행원도 오늘 접종”

“집단면역으로 사회 안전 지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AZ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다. 대다수 유럽국가들도 접종을 재개했고, 우리 질병관리청도 65세 이상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집단면역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와 제 아내도 오는 6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23일) AZ 백신을 맞는다”면서 “정상회의의 수행원들도 수행이 확정된 인원들은 23일 함께 접종을 하고 그 밖에 인원들도 수행이 결정되는 대로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AZ 백신 접종자들에게 혈전 발생 사례가 보고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접종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문 대통령의 당부로 풀이된다. 앞서 질병청

은 이날 오후 AZ 백신과 혈전 간의 직접 인과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접종을 지속 권고기로 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안전성 위원회 임시회의에서 AZ 백신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Z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던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도 접종 재개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께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체계적 접종 시스템이 가동되며 다른 나라에 비해 초기 접종속도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접종대상의 전체 신청자 중 이미 93%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지난 주말부터는 2차 접종까지 마친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백신 수급도 원활히 진행되면서 2분기에는 접종대상을 대폭 늘려 상반기 중에 1200만명 이상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의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여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벚꽃이 가져온 강진의 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진 지난 주말 전남 강진군 군동면 탐진강둑 왕벚나무가 탐스런 꽃송이를 활짝 터트려 화사한 봄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자 친구·직장·지인 간 감염 ↑

광주시지역당국, 가족간 감염은 줄어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지인·친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된 이후 가족간 감염률은 떨어진 반면 지인·친구·직장동료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4주동안 가족 감염은 55.5%에서 53.5%→35.4%→41.3%로 떨어졌다. 반면 지인과 친구, 직장동료 감염률은 26.1%→31.0%→32.4%→37.8%로 늘었다. 이는 거리두기 완화 이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가정 밖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도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산발적 감염이 대부분이었지만 7월 이후 교회와 요양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나오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했다. 광주지역 월별 코로나19 발생현황은 지난해 2월 9명, 3월 15명, 4월 6명, 5월 2명, 6월 24명, 7월 148명, 8월 174명, 9월 117명, 10월 19명, 11월 204명, 12월 380명, 올해 1월 717명, 2월 257명, 3월 이날 기준 94명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 수가 떨어져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때 직장을 통한 집단감염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며 “모임 참석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최윤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슬기로운
집콕생활!

위드 코로나 시대! 올해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즐겨주세요

왕인ONTACT

- 특집 다큐 ‘왕인박사 랜선으로 일본가요!’
-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 제31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지상백일장
- 천인릴레이 천인천자문
- 집콕놀이! 왕인키트
- 집콕! 챌린지
- 집콕ON! 글로벌 왕인 홍보단
- 왕인박사 추모 헌다례와 문화 강연

2021 영암왕인문화축제
On-Line Yeongam Wangin Culture Festival 2021

4. 1. 목 ~ 4. 16. 금

www.왕인문화축제.com

YouTube **영암왕인TV**

기찬영암ONTACT

- 유투버와 떠나는 3인 3색 랜선 영암여행
- 기찬영암 브이로그
- 영암여행 온라인 사진·영상 공모전
- 혜택 가득! 기찬영암 라이브 커머스
- 온라인 영암 마켓
- 온택트 영암예술무대
- 온택트 개막콘서트
- 공개방송 영암온에어 ‘즐거운 오후 2시’ (11개 읍·면)
- 온택트 폐막행사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영암군항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문의전화 | 061-470-2347